

다니엘 31 강

다니엘서 9 장 들어가겠습니다. 9 장 1 절부터 읽겠습니다. [메데아인들의 씨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칼데아인들의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 책봉되었던 첫째 해, 곧 그의 치리 첫째 해에 나 다니엘은 주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알려주신 연수를 책들로 깨달았나니 즉 주가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칠십 년 만에 완료하시리라는 것이라. 내가 내 얼굴을 주 하나님께 향하여 두고 금식하며 기도와 간구로 구하고 굶은 배움을 입고 재를 뿌리며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백하여 말하기를 오 주여 위대하시고 무서우신 하나님, 곧 주를 사랑하고 주의 명령들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언약과 자비를 지키시는 분이여. 우리는 죄를 지었고 죄악을 행하였음며 사악하게 행하였고 반역하였으며 주의 법규들과 주의 명령들을 떠나기까지 하였고 또 우리는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통치자들과 우리 조상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에 경청하지 않았나이다. 오 주여 의는 주께 돌아가도 얼굴의 수치는 오늘과 같이 우리에게 돌아오나니 즉 유다 사람들에게와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와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는 이스라엘 모두에게 즉 주를 거슬러 범죄한 그들의 허물로 인하여 주께서 쫓아내신 모든 나라에 있는 자들에게니이다. 오 주여 얼굴의 수치는 우리들과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통치자들과 우리의 조상들에게 돌아오나니 이는 우리가 주를 거슬러 죄를 지었기 때문이니이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자비와 용서가 있으나 우리는 주를 거역하였으며 또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였고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주의 법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정녕, 모든 이스라엘이 주의 법을 범하였고 심지어는 떠나 버림으로 그들이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않았나이다. 그러므로 그 저주와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가 우리에게 부어진 것은 우리가 주를 거슬러 죄를 지었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큰 재앙을 가져오심으로 우리와 우리를 판단하였던 우리의 재판관들에게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확정하셨으니 이는 온 하늘 아래에서 예루살렘에 행해졌던 것과 같은 일이 행해지지 않았음이니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으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들로부터 돌이키거나 주의 진리를 깨달도록 즉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하지 않았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그 재앙을 지켜보셨고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져오셨으니 이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 의로우시나 우리는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않았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백성을 능하신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날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오 주 우리 하나님이며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악하게 행하였나이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아하수에로라는 것은 왕의 명칭입니다. 옛날 이집트 왕의 명칭이 파라오인 것처럼 말이죠. 자, 갈데아인의 나라는 물론 바벨론을 얘기하죠? 그런데 다리오왕이 책봉되는 해가 주님이 오시기 전, B.C 538 년이었습니다. 자 다니엘은 앞에 7 장 8 장에서 네 짐승의 환상과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환상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깨달았을 때 크게 놀라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될 일을 깨달으면 놀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을 바라볼때 너무나 처절하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깨달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감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금의 바벨론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오랫동안 엄청난 수난과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을 그는 알았죠. 많은 날들 동안 있을 일 그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았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다보면 알게 되는데 성경을 덮어두니까, 심지어 미국 교회에 가보면 성경과 찬송가가 앞에 꽂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가지고 다닙니다. 그냥 빈 몸으로 왔다가 보고 갑니다. 그러니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자기 살기 바쁩니다. 이게 또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많은 날 동안이 얼마나 긴지 우리는 이제 이 9 장을 통해서 확실히 배울 때 우리도 정말 다니엘의 심정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연말만 되면 또 연초만 되면 다니엘의 21 일 새벽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그때 알아야 될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깨닫는 일이 중요합니다. 뭐 내가 나와 가지고 내게 필요한것 구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은 다니엘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9 장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응답받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된 기도를 아직도 많이 하고 있는지 깨닫는 시간이 된다면 엄청난 축복이 되겠죠? 자 24 절 미리 가보면 **[칠십주가 네 백성과 거룩한 도성에 정해졌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70 년이 다 지났습니다. 2,3 년만 있으면 이제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러한 복된 소망을 깨달았는데, 70 주라고 그러니까, 이 70 주는 말이죠 70 년의 일곱 배가 됩니다. 490 년이 또 앞에 남아있는거죠? 490 년이 남아 있는데 마지막 7 년은 큰 환란이요 이때 엄청난 사람들이 죽는단 말이죠. 이것을 다니엘이 알았을 때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실 다니엘은 기뻐하면서 찬송해야 합니다. 2,3 년만 되면 이제 해방된단 말이죠. 대한민국이 일본에서 해방될 때는 기뻐했지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있었나요? 대한독립만세 하면서 그냥 지금도 광복절을 기념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말씀을 통하여서 490 년이 또 남았다는것, 많은 날이 그거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엄청나게 그는 놀랐지요. 그래서 다니엘은 2 절에 보니까 그 연수를 책들로 깨달았다. 70 년만에 이제 해방될 것을 책들로 깨달았다. 예리미야에게 임한 연수입니다. 자, 예레미야서 25 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임한 말씀을 깨달았는데 그것을 책들을 통해서 깨달았다 이런 얘깁니다. 25 장 12 절 보면 **[칠십 년이 차면 내가 바빌론 왕과 그 민족과 칼데아인의 땅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리니 그 땅을 영속적으로 황폐케 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또 11 절 보면 **[그리하면 이 온땅이 황폐함과 경악거리가 되며 또 이 나라들은 바빌론 왕을 칠십 년간 섬기리라.]** 70 년이 차면 된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해가 B.C606 년이예요. 지금 아하수에로가 통치할 때가 언제인가 하면 B.C538 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2,3 년만 있으면 해방됩니다. 68 년이 지났습니다. 2 년정도 지나면 이제 해방이 되죠. 그래서 이사야서 44 장에 봐도 이런 말씀이 있죠. 44 장 28 절에 보면 **[고레스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목자요 나의 모든 기쁨을 이행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게도 말하기를 너는 재건되리라 하고 성전에게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이라.]**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의 고레스왕을 기름부어 가지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해방 시키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될 일들, 우리에게도 앞으로 될 일들을 지금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다니엘서 에스겔서, 요한계시록 심지어 창세기에도 있습니다. 이 성경을 책들이라고 했지요. 우리가 책이 몇권있습니까? 66 권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이 다섯권으로 있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70 권입니다. 하나님의 숫자 70 권이 되는 거죠. 시편보면 1,2,3,4,5 권 이렇게 되있거든요. 다니엘 시대에도 책들이 있었죠? 그때는 신약이 없었지만. 두루마리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노년이 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연구했던 말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연구할 때 앞으로 될 일을 아는데 연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연구한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잘못됐다 그러고 어찌 그럴수 있냐?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하시냐? 사랑의 하나님이 대심판에 넘어가게 해서 그렇게 지구 인구의 반을 죽이느냐? 자기들이 지은 죄는 생각 안하고 하나님만 욕한단 말이죠. 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느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하러 오느냐?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판단한단 말예요. 다니엘은 기도 전체가 모든 죄는 우리에게 돌아오고 모든 의는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그러는데 요즘 보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말씀을 보지 않고 배우지를 않으니까 앞으로 일어날 이 엄청난 일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그저 먹고

마시면서 노아 때처럼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외치면서 살고 있는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쁨에 부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휴거만 외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대환란에 넘어가서 고통받는거 불뿔에 떨어지는거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고 도망다니는거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대환란과 천년왕국과 영원세계를 알지 못하고 그저 나 하나 휴거 될 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기뻐하는 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 어린아이들이죠. 마찬가지 입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그는 죽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다니엘 때에 오는것이 아니거든요. 다니엘은 해방되어 살다가 편안하게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 가면 되는데 그는 앞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그저 내 안일함만 바라보고 내 것만 챙기는것은 기도가 아니죠. 자 이렇게 다니엘이 기뻐해야 되지만 네 짐승들이 나타나는 환상을 보고 또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을 봄으로써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포함해서 앞으로 일어날 네 제국들이 더 출현하게 될 것을 알게 되었고 이 놀라운 사실과 더불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예언을 어떻게 알아야 될지,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이 되는데 또 바벨론이 나와서, 또 어떻게 이런 나라들이 나와서 또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고 70 주간 490 년 동안을 수난을 겪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그는 혼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금식하고 있을때 나중에 보게 되면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다 알려주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공부하면서 깨닫기를 원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는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자기 몸뚱아리 하나 자기 안일함만 취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깨달을수 없다는 것은 주님과 교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주님과 교통하는 전화선이 뽑아져 있는가, 여러분 전화선이 뽑아져 있는데 아무리 수화기에 떠들어 보세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다보면 주님은 듣지 않으신데 선은 끊어져 있는데 교제가 끊어져 있는데 우리 혼자 중얼 중얼 거리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한국말로 기도하고 뭐 여러가지 많이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 안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는 성경 66 권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우리가 다 공부하고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결국 내 뜻을 위해 살게 됩니다. 내 생각은 내가 알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면 안되잖아요. 자 3 절부터

다니엘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요즘 크리스찬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따르기를 위해서 교회마다 1년에 한번씩 꼭 다니엘의 21일 기도회를 합니다. 자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와 간구로 구하고 굶은 배움을 입고 재를 뿌리며 또 죄를 자백하며, 이렇게 했죠? 죄를 자백하며 드리는 기도가 19절까지 이루어지는데 장장 3주동안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도가 응답된것을 전하러 온 주의 천사가 들어올때까지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백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자백이란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드러야 할 본보기가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어느 나라나 어느 개인이나 어느 교회를 불문하고 하나님께 올바르게 되기를 구할 때 반드시 드러야 할 기도가 이런 기도가 아니겠는가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이 기도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개인이나 교회나 나라들은 여러가지 기념일날, 한국같은면 광복절 미국 같은면 독립기념일 건국 기념일, 뭐 이렇게 이런 날들을 맞이 할때에 이런 기도(죄를 자백하는 기도)를 드리는 민족은 사실 찾아보기 힘듭니다. 기껏해야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 가지고 잘 다스리게 하가지고 우리가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또 전쟁할때에 이기게 하옵소서. 월남전 할때 베트남을 이기게 하옵소서, 또 공산주의자들을 무찌르게 하옵소서. 올해도 풍년이 되게 하옵소서. 전염병 같은것도 번지지않게 도와 주옵소서. 아 이런 기도는 많이 드리죠? 그런데 이런 기도는 다니엘이 한 기도에는 미치지도 못합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드리면서 죄를 자백했다. 다니엘이 무슨 죄가 그렇게 많을까? **[우리는 죄를 지었고 죄악을 행하였으며 사악하게 행하였고 반역하였으며 주의 법규들과 주의 명령들을 떠나기까지 하였고]** 결국 우리의 죄를 자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민족적으로 다스리잖아요? 다니엘이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는 거지요. 이것을 요즈음 소위 중보기도라 하잖아요. 중보기도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것, 저 사람을 도와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참된 중보기도는 그들의 죄를 내 죄처럼 자백하는게 중보기도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지 못하기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자기자신의 죄처럼 기도합니다. 오늘날도 누가 죄를 지을 때 그 사람을 욕할게 아니라 그 사람의 죄가 내 죄처럼 자백하는 기도를 드러야 해요.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단 말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는 커녕 판단한단 말예요. 나는 괜찮다 나는 깨끗하다 그래요. 다니엘로 말하면 깨끗한 사람이예요. 그는 주님 다음으로 깨끗한 사람이예요. 심지어는 다니엘과 욥과 노아가 있을지라도 그들의 의 때문에 그들 자신만 간신히 혼이 구원받는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인정해 준 사람이예요. 다니엘과 노아와 욥 이 세사람이 그렇게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사람이 뭘 그렇게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21 일동안이나 기도를 하겠습니까? 전에 보면 하루에 세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습니까? 6 절에 보면 말씀하신 것에 경청하지 않았나이다. 또 8 절에 보면 우리가 주를 거슬러 죄를 지었기 때문이니이다. 9 절에도 우리는 주를 거역하였으며 10 절에도 주의 법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11 절에서 15 절까지 계속 갑니다. 4 절 보니까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백하며 말하기를 오 주여 위대하시고 무서우신 하나님 곧 주를 사랑하고 주의 명령들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언약과 자비를 지키시는 분이여]** 다니엘은 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my Father,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를수 있죠? 성령이 오시기도 전에 그는 my Father 그랬습니다. 아바 아버지다. 그만큼 그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사자굴에 갔을때 만났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도 정말 죽음의 고통가운데서 주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실 때에 그럴 때 정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아버지 아버지 부를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는 성경에 나타난 인물 가운데서 주님 다음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는데도 그는 계속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이런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수가 있지요. 그래서 21 절에 미리 가보게 되면 다니엘이 저녁 예물을 드릴 즈음에 가브리엘이 날라 왔다고 그랬죠. 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영철을 주려고 왔느니라. 이는 네가 크게 사랑을 받음이니... 얼마나, 여러분 이런 기도 응답같은 기도응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메세지 받으면 최고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순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몸을 던져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가 주님때문에 말씀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고 이단 삼단 소리를 듣고 고난 가운데 살지만은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확신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인정해줘도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 그음성을 듣지 못하면 이걸 아무것도 아녜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이런 찬양시를 만든거예요. 다니엘같이 음성을 들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주 음성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사람들이 아무리 욕하고 인정 안해 줄지라도 주님의 음성 외에는 더 기쁨이 없도다. 이게 진정한 기도와 응답받는 사람이에요. 뭐를 달라고 해서 받는 응답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확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항상 같이 하신다. 어디를 가더라도 성령님 같이 가십시다. 이렇게 친밀하게 할수 있는 사람들. 다니엘은 하나님이 크게 사랑하신다는

말을 직접 들었어요. 주의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그런데도 다니엘은 굶은 배옷을 입고 재를 뿌리며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히 무릎을 꿇고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도요한이 마지막 때에 사는 성도들에게 어떤 권면을 했습니까? 요한일서 1 장 보겠습니다. 5 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 관혀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 어우름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러나 그분이 빛가운데 계신 것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사실 이제 죄라는 건 뭐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게 죄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누구를 판단합니다. 아 저사람 구원 못받았어. 구원 받았는데 이제는 버림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죄는 못깨달아요. 자신이 주님의 피를 믿지 못하는 죄는 못 깨달아요. 오늘날 문제가 뭐냐하면 죄를 고백하려 해도 죄가 뭔지를 몰라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던 말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빛을 받지 않았기때문에. 빛의 말씀을 받지 않으니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릅니다. 빛이 임하지 않으면 내 속의 어두움이 뭔지 모릅니다. 이것이 오늘날 문제입니다. 그래서 죄 그러면 거짓말하고 술먹고 담배피고 간음하고 이 정도만 알지만 죄 그럴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게 죄인지 몰라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않은게 죄인지 몰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이걸 율법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은게 죄인지 몰라요. 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감사하지 않은게 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자백할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의 죄를 몰랐어요. 율법을 읽지 않으니까. 듣지도 않으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사도요한은 마지막때에 사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베드로전후서 야고보서 히브리서 요한 1,2,3 서 요한계시록은요 이 마지막때에 될 일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사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경종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면 성도들간에 교제가 될 수없어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 6 절보니까 **[또 우리는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통치자들과 우리 조상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에 경청하지 않았나이다.] 다니엘은 책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범할 죄들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해 놓으신 그 심판의 계획들을 자세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70 년동안 황폐하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포로잡혀 가기 전에 그랬어요. 너희는 가야된다. 가서 70 년동안 있어야 된다. 거기서 아들딸남고 농사짓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을 죽일려고 했습니다. 또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 그랬냐하면 절대 바벨론왕을 섬기지 않을거야. 그리고 2 년 정도면 돌아올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스겔서에는 뭐라 그랬죠? 아 걱정하지 말아. 예루살렘은 솔이고 우리는 고기야. 솔이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솔뚜껑 열고 우리(고기)를 못 꺼내가. 이렇게 얘기 했어요.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마찬가지로입니다. 오늘날 거짓 종들이 뭐라 그러죠? 주님 안오셔, 휴거가 어딴, 환란이 어딴,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 오신다는 사람 있으면 이단이라고 그러면서 죽일려고 그러죠. 매장시킬려고 그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미국 장로교회에서는 거기서 청빙되가지고 어느 교회를 담임할려고 그러면 세가지를 동의해야 된다고 그랬죠? 동성애를 인정해라. 그 다음에 성경은 하나님이 쓴게 아니고 사람이 쓴것이다. 그다음에 WCC 에 가입해야 된다. 이 세가지를 인정하지 않으면 목사가 되지 않는데요. 이걸 교회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이 쓰신건데 사람이 썼다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막뚫어 고치는거예요. 실로 이스라엘은 경청하지 않았습디다. 선지자들의 말을 경청하지 않았고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다니엘은 이것을 자기 죄처럼 고백한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단 증거가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너는 정말 사람받는 자다. 정말 합당한 기도를 한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다 받아 주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 뭐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해야 합니다. 뭘 그렇게 오래 쓸데 없는 기도를 하난 말이죠.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기도는 뭐죠? 허공을 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자신의 죄와 교회 성도들의 죄와 민족의 죄 이런것들을 우리가 자백하면 주님과 교통이 되기 때문에 다른거는 말이죠 필요한것은 주님이 더 잘 알죠. 주님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너희가 필요한거 다 안다. 이걸 구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구하지 말라는건 구하고 구하라는건 안 구해요. 이게 오늘 이 시대나 그때 이스라엘이나 마찬가지로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지금 어디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있잖아요. 큰

바벨론이 어딥니까? 로마에 있잖습니까? 거기에 포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WCC 에 들어간 겁니다. 대부분이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 교단들이. 그런데도 몰라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도 몰라요.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듣도록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이게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날 이루어지는 일이고 우리가 마땅히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 것인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이트를 열면 큰 바벨론에서 나와라. WCC 에 들어간 교회에서 나와라. 그들이 받을 재앙에 참여하지 말아라. 이렇게 써놨지요. 듣기 싫어도 써놓은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기 때문에 써놓은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뭘 그런 얘기를 써놓냐? 이렇게 얘길 하는 데 아는 사람만 답답한거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될일을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 다니엘처럼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다니엘이 기도할때 그냥 응답이 됐는데 21 일동안 그 페르시아 국군 정사가 마귀의 정사 권세가 못오게 막았잖아요. 그럴때 군대장관 미카엘이 도와 줬어요. 그래가지고 옥신각신 하다가 21 일만에 도착한거지 응답은 이미 된 것입니다. 기도한 것은 받은 걸로 알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고 그랬죠?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된 걸로 알고 잊어 버리면 시간이 지나면 눈에 보이게 나타나느 겁니다. 그런데 이걸 또 구하고 또 구하고 자꾸 구합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런것처럼 40 일동안 정한수 떠놓고. 이게 한국 사람들이 옛날 무당, 무속 신앙 있잖아요? 여기에 젖어 있어요. 이게 문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이 시대도 그 시대와 똑같은 시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의 교회나, 그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똑같은 것이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고난을 보면서도 앞으로 임할 대환란을 보지 못하고 휴거를 보지 못하는 이 마지막때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부분의 교단들이 큰 바벨론에 WCC 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이런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죄들을 자백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죄를

자백하고 또 교회들의 죄를 자백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